

# 보험산업에 타격... 모집과정 지출 합리화 등 대응 마련해야

## ‘트럼프 시대’ 韓 보험업계 전망

대외환경 변화·국내정치 불안정  
국내 보험산업 수익성에 악영향  
자동차·실손 지급보험금 관리로  
안정적 보험영업이익 확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경제·정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보험산업 역시 타격이 예상되면서 다가오는 트럼프 시대에 대한 보험업계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가 예상되는데서다.

2025년 글로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은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전환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EU(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들은 지난 2023년까지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의 막을 내리고 작년부터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미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주 리티프에서 연설을 마친 모습이 방탄 유리에 비치고 있다. /뉴시스

다. 올해에도 통화정책 전환 과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및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거시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전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 무역주의 강화 ▲포괄적 감세 ▲고립주의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강도 및 시

행시기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 간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등의 탈동조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역환경 악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기준금리와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시장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는 주식, 채권, 환율 등 우리나라 금

용시장 변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지난 12월 9일 13개월 만에 2360선까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12월 말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 및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올해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정적 보험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판매채널 및 보험상품 등 보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영효율화를 위한 보험사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경영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내수부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사업비 지출 합리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상품의 지급보험금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험영업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보험모집시장에서 사업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보험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금리 하락 시 장기적으로 투자영업이익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보험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보험사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사업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보험금 지급의 경우 내수위축에 따른 보험수요 저하가 예상되면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상품의 지급보험금 증가와 보험상품 판매망 확보를 위한 사업비 지출 경쟁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보험은 불필요한 수리비 억제를 위해 품질인증 부품 활성화, 고가차의 부품 재고관리를 통한 수리비 인상 압력 억제가 요구된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환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보건정책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보험연구원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보험산업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가 요구된다”며 “보험모집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위한 보험사의 대응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안덕근, 美 방문해 산업·에너지 등 협력 논의

(산업장관)

오늘 출국... 韓 기업 사업환경 점검  
워싱턴 D.C.서 상·하원 의원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20일 취임을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점검하고, 주요인사들을 만나 우리 기업 지원을 요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6일~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양국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 속 우리 정부 최고위급 인사



미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6일~7일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하고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SK은 조지아 공장을 방문하고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 대미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조지아 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8~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밖에도 미 업계,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방문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올해 재건축은 빨라지고, 대출규제 강화

### 2025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구축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7월에 스트레스 DSR3단계 시행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가격 차별화를 비롯해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아파트 청약 성적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새해에도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급 축소’ 등으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

SR) 3단계 실시 등이 있다.

1월에는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만기 전에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단,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전지원 기자 jim13@

## 정규-비정규직 임금차 175만원 ‘역대 최대’

>> 1면 ‘분열·대립 정국에...’서 계속

### ◆세대·남녀·집값·도농 편차

그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 양극화는 주요 현안에 대해 참여한 대립을 초래했다. 입법이 밀리면서 각 부처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사회·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 ▲남녀 임금격차 ▲정규-비정규직 격차 ▲생산가능인구의 후퇴 ▲농촌 및 지방 소멸위기 ▲주택가격의 양극화 등이다.

우리나라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번째 임금격차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9.3%에 달했다. 남자 중위 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별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이 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 중위임금은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에 그친 것이다.

제작년 남녀 격차는 31.2%로, 회원국 38곳 중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1.4%보다 20%포인트(p) 크다. 아태 지역만 봐도 뉴질랜드(6.3%), 호주(9.9%), 미국(17.0%), 일본(21.3%) 등 우리보다 크게 낮았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까지 벌어졌다. 정규직(월평균 379만6000원)이 400만 원을 향하는

반면, 비정규직(204만8000원)은 이제 서야 비로소 200만 원을 넘어섰다. 정규직 임금의 경우, 17년 전인 지난 2007년에 이미 200만 원대에 진입했다.

게다가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를 거친 뒤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20대 임금근로자 열명 중 넷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비중이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수가 81만7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만 명 넘게 늘어났다. 시간제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 이상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노인인구 증가와 청소년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수준까지 내려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 자금유입 제한적”

>> 1면 ‘韓 증시 재조출발...’서 계속

다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본격적인 국내 증시 귀환 흐름을 기대하기 선부르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 2024년 4분기 잠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실적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의 상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이번 잠정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시장예상치인 8조9000억원, 8조1000억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후 2025년 코스피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

분간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외적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경기가 둔화되며 결국 금리 인하를 재개하거나, 트럼프 정권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되면, 달러 강세 일변도가 꺾이며 국내 증시도 반등을 노릴 것”으로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